

부산시, ‘스마트시티 분산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만든다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 선정 연말까지 사업비 19억 투입 계획 박형준 시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미래 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시가 에너지 기업인 포드림, 배터플라이와 연합체를 구성해 응모한 ‘스마트 시티 특화형 분산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시티 특화형 분산 에너지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활성화 기반 조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분산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분산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전력 거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저장전기 판매 시스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청 전경. (원형사진) 박형준 부산시장

또 ‘분산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분산에너지원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강서구 일원의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비해 ▲고부가 첨단산업 전환 ▲관련 산업 유치

등을 통해서도 ‘첨단산업 거점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다양한 분산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판매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어, 관련 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시설 확보로 에코텔

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지역 간 거래함으로써, 앞으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분산 에너지 등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를 활용하면 전력 최고조 시간대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 전력 계통의 부담이 완화된 지역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가 가능하다.

시는 이런 친환경 신산업 활성화 기반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이번 사업뿐 아니라, 부산형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나가 도시의 산업 경쟁력 증대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으로 부산이 클린에너지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울진군은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22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개편은 군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디자인과 전반적인 웹스타일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정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더욱 역동적이고 생생한 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메인페이지에는 동영상을 도입해 울진군의 주요 정책, 행사 등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칠곡군

‘청렴·자체감사활동’ 최우수상

칠곡군이 경상북도가 발표한 ‘2024년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와 자체감사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경북도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것이다.

칠곡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청렴추진단 구성,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청렴명함·안패관 제작, 찾아가는 반부패 청렴 컨설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울산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

10억 투입… 1.4만그루 식재 예정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도심 생활권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숲을 말한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2년에는 중산1·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1.0ha에 1만8244그루의 수목을 심었다. 또 2023년에는 매곡2·3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5억원의 사업비로 면적 0.5ha에 편백 등 35종 1만7339그루의 수목을 식재했다.

지난해에는 모동화일반산업단지



울산 모동화일반산업단지 내 도시숲

내(북구 효문동 1013 일원)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1.1ha에 이팝나무 등 12종 1만384그루의 수목을 심었다.

올해는 국·시비 등 10억원을 투입해 신일반산업단지 내(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946번지 일원) 경관녹지 부지에 1.0ha 규모로 도시숲을 조성한다.

식재되는 주요 수종은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 22종, 1만3907그루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2025. 4. 21.(월) 14:00 포항시청 중회의실



포항시는 21일 GS건설, HD현대인프라코어, 아모지(AMOGY)와 함께 ‘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 ‘탄소중립’ 도시전환 속도

GS건설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협약

포항시는 21일 GS건설, HD현대인프라코어, 아모지(AMOGY)와 함께 ‘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이정환 GS건설 신사업추진부장, 서상연 GS건설 투자사업부장, 임형택 HD현대인프라코어 엔진본부 영업부장, 우성훈 아모지(AMOGY)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무탄소 에너지 공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청정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 기술

개발과 실증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분야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정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한 수소엔진발전 기술을 활용한 무탄소 전력이 지역 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포항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달성군, 교육발전특구사업 본격 추진

7개 사업에 31억9000만원 투입

달성군은 공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총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특별교부금 15억 9000만 원과 군비를 포함해 총 31억 9000만 원 규모

로 진행된다. 이는 대구시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교육에 대한 달성군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핵심 사업으로는 지역대학인 DGI 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연계한 과학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관내 우수 학생들에게 DGIST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전국 수준의 과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완도군, 귀농·귀어·귀촌인 정착 지원

올해 13개 사업 추진 계획

완도군은 귀농, 귀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귀농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정착 및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5세대, 세대 당 500만 원) ▲어울림 마을 3개소 운영 ▲동네 작가 운영 ▲귀농, 귀어, 귀촌 모임체 육성 등이 있다.

귀어인을 위해서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20명, 연차별 차등 지원) ▲귀어가 정착 지원(10가구, 세대 당 5백만 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전남에서 살아보기’(2개소)는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3개월간 완도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형 만 원 세컨 하우스’(2개소)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정비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거주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4회)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5회) ▲귀농귀어 교육(2회) 등을 통해 예비 귀농, 귀어, 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항만공사

“경관수로 새 명칭 ‘별빛수로’”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친수공원’ 내 조성한 ‘경관수로’의 명칭을 ‘별빛수로’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명칭이 부여된 경관 수로는 2023년 11월 시민에게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주요 시설 중 하나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편안한 휴식과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별빛수로는 아름다운 조명 아래 흐르는 수로와 밤하늘의 별빛 그리고 부산항 풍경이 어우러져 반짝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